



제품사고를 당했다면 이제 위해조사팀을 찾으세요!

기술표준원 '위해조사팀' 운영으로 위해사고 능동적 대처

“ 「사고조사」는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불량 및 불법제품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그동안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등 불량·불법제품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힘써왔으나,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. ”

미국과 일본의 경우, 대형 사고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해 사고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, 작은 사고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이처럼 '사고전문조사기관'에서 현장조사를 실시,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.

이러한 흐름속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제품안전조사과 내부에 위해조사팀을 신설,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기표원은 사고발생 유형을 ▲기계·물리적 사고 ▲화재·누전에 의한 사고 ▲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사고 등 3가지로 분류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전기안전연구원 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한 12개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.

이와관련해 기표원 관계자는 “아직까지 ‘조사’라고 하면 꺼리는 기업들도 있지만, 대부분 기업이 사고조사제도를 인정하는 분위기”라며 “소비자와 기업,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* 문의 :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조사과(02-509-7252)